

JLSK 한국요한문헌학회

2023 제15회

정기논문 발표회

2023.8.26(토) 10:30~14:00

장로회신학대학교 소양관 202호



발제 1 11:00~11:30

다음 세대를 위한 요한복음:
성서교수학적 관점에서의 고찰

발제 고원석 박사(장신대 기독교학과 교수)

좌장 박영진 박사(안양대학교),

논찬 조재형 박사(강서대학교)



발제 2 12:00~12:30

요한복음의 생태적 읽기의
가능성에 대한 소고:
새창조의 성전으로서의 예수를 중심으로

발제 신현태 박사(장신대 신약성경학과 교수)

좌장 심우진 박사(서울장신대학교),

논찬 임진수 박사(감리교신학대학교)

2023 제15회

정기논문 발표회

다음 세대를 위한 요한복음:

성서교수학적 관점에서의 고찰

발제 고원석 박사

(장신대 기독교학과 교수)

요한복음의 생태적 읽기의

가능성에 대한 소고:

새창조의 성전으로서의 예수를 중심으로

발제 신현태 박사

(장신대 신약성경학과 교수)

2023.8.26 (토) 10:30~14:00

장로회신학대학교 소양관 202호

1부	10:30~10:50	개회 예배	사회: 김문경/ 말씀: 조석민 명예회장/ 기도: 김재순
	10:50~11:00	휴식	
2부	11:00~11:30	논문 발표 1	다음 세대를 위한 요한복음: 성서교수학적 관점에서의 고찰 고원석 박사 (장신대 기독교학과 교수)
	11:30~11:45	논평	사회: 박영진 박사/ 논찬: 조재형 박사
	11:00~11:55	자유토론	
	11:55~12:00	휴식	
	12:00~12:30	논문 발표 2	요한복음의 생태적 읽기의 가능성에 대한 소고: 새창조의 성전으로서의 예수를 중심으로 신현태 박사 (장신대 신약성경학과 교수)
	12:30~12:45	논평	사회: 심우진 박사/ 논찬: 임진수 박사
	12:30~12:45	자유토론	
	12:55~13:00	기념사진 촬영	
3부	13:00~13:15	광고, 친교	사회: 조재형 총무 신입회원 환영 회비납부자 선물증정(김문현 교수님 저서)
	13:15~14:00	공동식사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다

다음세대를 위한 요한복음: 성서교수학적 고찰

고원석

장로회신학대학교_성서교수학

I. 여는 글

복음서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후대에 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록되었다. 그런 점에서 복음서는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다양한 복음서 중에 현재의 네 개의 복음서만이 정경으로서 인정되었다는 사실은 현재의 복음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기준과 근본을 제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정경화 과정도 교육적 성격을 갖고 있다.

본 소고는 요한복음을 교수학의 눈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복음서의 기록과 정경화 과정이 교육적 의도와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우리 앞에 놓여진 요한복음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에 대한 자신만의 고유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 관점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본 소고는 요한복음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교수방법론적 물음보다는 요한복음 스스로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신앙교육의 의의와 방향성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자 한다.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바라보고자 한다. 즉,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음세대 신앙 교육 및 신앙 잇기에 고민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곁에 없는 세계에서 그리스도 신앙을 어떻게 경험하고 교육하며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먼저 요한복음이 교육학적으로 왜 흥미로운 책인지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다면적인 모습을 간단하게 언급한(II) 후, 요한복음이 이방 세계와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신앙하기 위한 (내재적) 독자들을 향한 복음서임을 설명하고(III), 요한복음이 고유하게 제시하는 신앙의 네 단계 구조를 살

펴보고자 한다(IV). 이 고찰은 현대 신앙교육의 새로운 틀을 모색하는 한국 교회에도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II. 흥미로운 책, 요한복음¹

1. 성경의 요약

어린 시절 교회학교를 경험했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장 자주 듣고 암송했던 성경구절이 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 전체 메시지를 요약한 말씀으로 가르쳐왔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으나 종교개혁자 칼뱅(J. Calvin)은 복음서를 포함한 성경의 책 중에서 요한복음을 가장 사랑했다고 말한다.

2. 쉽고도 어려운 책

물에 비유해서 말한다면 요한복음은 “어린이가 건널 수 있는가 하면, 코끼리도 수영할 수 있는 책”이다.² 어린이가 건널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간단하고 쉬운 언어로 되어 있는 반면, 복음서 중 가장 심오한 신학적, 그리스도론적 성찰을 수행하고 있는 책이기도 하다.

[표1]: 복음서의 어휘수 비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실제단어 수	1,691	1,345	2,055	1,011
전체단어 수	18,305	11,242	19,428	15,416

사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어휘의 수는 비교적 적은 편이고, 비슷한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한다. [표1]에서 보듯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전체 단어는 15,416개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보다 적고 마가복음보다 많다.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동일한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단어를 제하면 실제 단어수는 1,011개에 불과하다. 가장 짧은 복음서인 마가복음의 1,345개 보다도 훨씬 적다. 게다가 요한복음은 비교적 단순하고 쉬운 문장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신약성서 원전 읽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은 요한복음(요한서신)을 먼저 읽도록 지도를 받곤 한다. 하지만 이렇게 어휘적으로나 문장 구조적으로 단순해 보이는 요한복음이지만 공관복음서에는 전혀 볼 수 없는 철학적·신학적으로 심오한 표현이 등장하기도 한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말씀(로고스),’ ‘성육신,’ ‘중생’ 등의 개념은 상당히 깊이 있는 사고력을 가지고 접근해야 이해할 수 있는 어휘이다.

또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은유적 표현으로 설명함으로써 그를 구체적·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한편, 그리스도의 선재(先在)성을 바탕으로 고동 기독교론을 펼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놀랍다. 즉, 지상에서 출생하여 세례요한에게서 세례를 받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시작으로

1 참고: Francis Gench, Encounters with Jesus (Louisville: WJK, 2007), 1-10. R. A. Culpepper, The Gospel and Letters of John, 박경미 옮김, 『요한복음 요한서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Sandre M. Schneiders, Written That You May Believe (NY: Herders & Herders, 1999). 9-92.

2 Robert Kysar, John: The Maverick Gospel, 나채운 옮김, 『요한복음서 연구』 (서울: 성지출판사, 1996), 2-8.

로 조명하는 공관복음의 수평적 구조와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한 존재로 설명하고 있고,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 아버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다. 가장 쉬운 듯 하면서도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복음서가 요한복음서라 할 수 있다.

3. 감각적인 복음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보고 듣고 만지는 등의 감각적인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특히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각(視覺)과 관련된 구체적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에만 보아도 ‘보다’란 동사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

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

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0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

32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3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35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7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38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39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날 함께 거하니 때가 열 시쯤 되었더라 [...]

46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47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

5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 굵은 밑줄 글씨: ‘보다’ 동사 / 네모 점선: 움직임과 정지(멈춤), 위치

이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은 예수의 일곱 기적 사건을 보고하면서, 그것을 기적이란 표현 대신에 표적(기호)이라고 부르고 있다.³ 이것은 예수의 기적사건을 기적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지시하는 깊은 의미를 더 바라보게끔 하는 해석학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슈반클(O. Schwankl) 같은 학자는 요한복음은 보는 능력을 가르치는 “시선 학교”(Sehschule)라고 표현하기도 한다.⁴ 또한 7개의 “에고 에

3 기호(Zeichen)와 신약성서 해석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Stefan Alkier, Neues Testament (T bingen: A.Francke, 2010), 143-175를 참조하라.

4 Otto Schwankl, Licht und Finsternis: Ein metaphorisches Paradigma in den johanneischen Schriften (Berlin: Herder,

이미”(ego eimi)의 은유적 표현도 시각적, 감각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움직임과 멈춤의 역동적인 몸짓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움직임(거닐다/따르다)과 멈춤(거함)의 반복,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이동과 거주의 반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이 미치 음악적 선율과 리듬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는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특히 13장-17장에 등장하는 예수의 고별담화는 시간의 흐름이 갑자기 멈춘 듯한 인상을 준다. 그것은 마치 음악의 카덴차(cadenza)⁵처럼 음악의 기존 흐름이 멈추고 갑자기 등장하는 즉흥적인 독주 같기도 하다. 또 요한복음은 시간(때)과 위치(위에/아래에)를 세심하게 표현함으로써 시공간적 감각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

4. 너무 인간적인 예수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선재했던 하나님의 말씀(로고스)이 성육신한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밝히고 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복음서에 묘사되고 있는 예수보다 훨씬 인격적이고 인간적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각적 표현이 독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욱 인간적으로 느끼게 한다. 특히 12장이 끝날 때까지 예수는 다양한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중간중간 짧은 강화(3/4/5/6장)가 나타나긴 하지만, 그 강화 전에 상대방과 오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13장에서 제자의 발을 씻기는 예수의 모습은 권위적인 스승의 모습이 아니라 남을 섬기고 자신을 희생하는 너무나 자유롭고 인간적인 모습이다.⁶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자신은 이 세상이 아닌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럴수록 예수의 모습은 더 인격적이고 인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요13:1).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적 존재로 전제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공관복음서보다 훨씬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다.

5. 수수께끼 같은 말씀: 이해와 오해

요한복음이 비교적 쉬운 어휘와 간단한 문장구조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신학적 사고를 요하는 책인 이유는 중요한 상황마다 수수께끼 같은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 수수께끼 같은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제대로 이해하기도 오해하기도 한다. 실제로 요한복음은 처음에 예수님의 기적(표적)을 보고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떠나는 일이 발생했음을 보고하고 있다(참조: 요6:60-67). 예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6:54)는 말씀을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행위(6:51-52)로 오해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의 비유를 단 하나도 보도하고 있지 않다. 공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한 가르침의 방법이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러한 비유를 단 하나도 보도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은유적 표현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1995). 221.

5 카덴차/카덴차는 고전 음악 작품 마지막 부분에서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멈추고, 연주자의 화려하고 기교 넘치는 솔로 연주를 가리키는 말이다.

6 Sandre M. Schneiders, Written That You May Believe, 192-193.

고민케 한다. 사실 우리에게는 익숙한 “에고 에이미”의 은유적 표현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 은유(예를 들어, “내 마음은 호수”)는 문법적으로는 “A=B”라는 아주 간결한 문장 형식이지만, 그 내용을 본다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의미없는 표현이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호수와 같다고 등식화할 수 있는가? 하지만 이러한 아이러니한 표현이 기존의 의미 영역을 파괴하고 새로운 의미의 지평을 제시한다.⁷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에서 제시하는 언어는 수수께끼에 가깝다.

이미 요한복음은 예수의 기적을 예수의 권능에서 비롯된 초자연적 사건으로 가르치기보다는 현실(일차적 지시)을 넘어 이차적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기호(semeia)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방금 언급했듯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상징적-은유적 표현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 은유와 상징에 대한 문해력 없이는 무엇하나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수수께끼 같은 표현은 곳곳에서 등장한다. 요한복음 3장에서 유대 전통과 지식에 박식한 니고데모가 예수의 수수께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당황하고 있다. 예수의 거듭남(위로부터 남)을 이해하지 못해 어떻게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다(3:4).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후, 내가 이미 먹을 것을 얻었다는 예수의 말씀에 제자들이 당황하고 있다(4:33).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잠들었다는 예수의 표현을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11:12). 고별담화에서 제자들이 자신이 가는 곳을 따라오지 못하리라는 예수의 말씀(8:21-22)을 듣고 제자들은 스승께서 자신들을 믿어주지 못한다며 섭섭해 한다.

III. 다음세대를 위한 복음서

1. 친근한 예수

공관복음서의 예수와 비교하면 요한복음의 예수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⁸ 각 복음서가 제시하고자 하는 예수의 특징은 각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첫 사역과 마지막 사역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⁹

대부분의 학자들로부터 사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로 평가받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신 후 처음 행하신 일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다(막1:21-34). 부활 후 예수께서 마지막 분부(약속)로서 강조하고 있는 것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표적으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다(막16:14-18). 마가복음은 세상의 권세와는 다른 영적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 십자가 고난을 통해 드러나는 - 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 처음 하신 사역은 산 위에 올라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가르치신 것이었다. 이 산상수훈의 긴 가르침(마5-7장)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첫 사역으로 보도하고 있다. 마치 구약의 모세가 토라를 선포하듯이, 예수는 하나님 나라(천국) 백성의 토라(에토스)를 선포한다. 마태복음의 예수는 토라(율법)의 완성자다. 그리고 마지막 지상명령 또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는 교육명령이다. 마태복음은 토라의 선포자였던 모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토라, 즉 백성이 지켜야 할 계명과 품성을

7 Paul Ricoeur, The Rule of Metaphor, trans. by R. Czerny (London: Routledge, 2004), 128-139. 고원석, 『현대 기독교교육 방법론』(서울: 장신대출판부, 2018), 323-326.

8 Dirk Griesmer, In den Prozess verwickelt (Frankfurt/M, 2000), 7는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한다.

9 Rudolf Schnackenburg, Jesus Christus: Im Spiegel der vier Evangelien, 김평학 옮김,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왜관: 분도, 2009). Dieter Sanger & Ulrich Mell, Paulus und Johannes (T bingen: Mohr Siebeck, 2014)를 참조.

가르치는 자로 묘사한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의 처음 사역은 회당에서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신다”(눅 4:18-19)고 말씀하신다. 누가복음(-행전)은 특별히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통해 일어나는 역동적 사건을 강조하고 있으며 예수는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의 영(성령)에 철저하게 사로잡힌 가운데, 때로는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는 기적을 행하는 자로,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대언하는 예언자적 선포자로 등장한다. 특히 구약성경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끊어져 나간 것을 고발하고 심판했던 것처럼,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이방인들에게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우둔한 백성들을 경고하며 꾸짖는 장면이 나타난다(행28:25-26). 누가복음(-행전)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영(성령)에 충만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희년(해방/용서)을 선언하는 예언자 같은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과 달리 요한복음에서 처음 등장하는 예수의 사역지는 재미있게도 혼인잔치 피로연의 자리다. 공관복음에 비하면 요한복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예수의 모습은 (얼핏) 그리스도답지 않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도 아니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한 것도 아니고, 세상을 향해 희년을 선포한 것도 아니다. 예수는 가나의 어느 가정에서 치르는 혼인 잔치 자리에 초대받는 것으로 첫 공생애 사역이 시작된다. 권위의 자리, 능력의 자리가 아니라 일상적인 자리다. 게다가 포도주를 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은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자를 고치는 장면에 비하면 사소한 문제처럼 보인다. 부활 후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했던 자리도 고기잡이를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과 디베랴 호숫가에서 나눈 아침 식사 자리다. 지극히 평범하면서 친근한 분위기의 모습이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공관복음에서처럼 예수께서 제자를 직접 부르시는 일(유일하게 빌립을 부르심)이 드물다. 제자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세례요한 또는 제자)로부터 예수를 소개받고 먼저 예수께 다가와 제자되기를 청하고 있다(요1:37-38). 또 예수는 처음부터 제자들을 향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마4:19)는 식의 사역 부담을 지우지도 않는다. “와 보라!”고 초청할 뿐이다.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예수의 모습 어디에서도 권위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친근하게 대화하고 함께 동행하며 인격적인 만남을 기대하는 동료나 친구와 같은 존재다.

2. 그리스도 없는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복음서

■ 유대 전통과 단절된 세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듯이, 요한복음은 서기 90년 또는 100년 경에 기록되었고 당시 요한 공동체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부터 심각한 위협 및 박해의 대상이 되었던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¹⁰ 주후 85년 경 유대교 최고 지도자였던 랍비 가말리엘 2세는 그리스도인들을 유대 회당으로부터 축출하기로 결정하고(참고: 요9:22) 기독교의 선교활동으로 인한 유대교도들의 개종을 막고 회당 내

10 최초의 주장은 J. L. Martyn, History and Theology in the Fourth Gospel (Nashville: Abingdon Press, 1979)에서 시작되었다. 마르틴은 85년에서 95년 사이의 회당 예배 의식에 도입된 이단자들에 대한 저주의 기도문을 근거로 삼아 요한복음은 1세기 말경, 회당으로부터 쫓겨난 한 공동체 내에서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주장한다. Raimond E. Brown, 『요한교회의 신앙과 역사』, 최홍진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0); Klaus Wengst, Das Johannesevangelium (Stuttgart: Kohlhammer, 2019); 박경미, 『예수없이 예수와 함께: 요한공동체의 문학과 신학』(서울: 이화여대출판부, 2013) 등도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자(참고: 요12:42) 회당 예배에서 사용할 <18 기도문>을 도입하였다. 기도문에는 소위 이단자들에 대한 ‘저주의 기도문’(Birkath Ha-Minim)이 등장한다.”

박해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하시고, 오만의 지배를 우리 시대에 당장 근절시키오며, 기독교도들과 미님(=이단자들)들을 일순간에 멸하시오며, 그들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도말하시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옵소서.¹²

■ 유대인들의 문화와 언어와 단절된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공동체에서 축출되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유대 공동체와 단절되고 심지어 유대인으로서의 일체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¹³ 이러한 유대 공동체와의 단절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유대 문화를 떠나 그레코-로망 세계로 진입하여 살아가도록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이방 문화와 사상에 더욱 수용적인 태도를 지니며 살아가게 되었다. 실제로 요한복음은 유대 언어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를 염두하고 있음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공관복음에 등장하는 갈릴리(게네사렛) 호수를 로마적 표현인 디베라(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에서 유래)로 부르고 있고, ‘답비,’ ‘메시아,’ ‘게바,’ ‘실로암’ 등에 헬라어 의미를 덧붙이고 있다(요1:38;1:41-42;9:7).

또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이 관심을 기울였던 예수의 혈통이나 계보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혈통이나 육정, 사람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어린 양(요1:29,36;3:16 등)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태도는 요한복음의 내지적 독자들이 유대 언어와 문화로부터 거리가 먼 사람들이란 것을 말해준다.

마태복음이 예수를 토라의 완성자, 또는 모세와의 유사한 모습(탄생/산상수훈/5번의 강화)으로 설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갖추어야 할 규범(에토스)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요한복음은 구약의 토라 전승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 같다. 특히 유대 성전이나 유대 절기에도 시간적 의미 외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복음서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시며 성전을 헐라고까지 명한다(요2:13-19). 예배의 처소에 대한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님을 강조하며 오히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4:23)를 강조한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도 전통적인 유대 유월절 만찬의 모습이 아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을 거행하고 있다.

■ “예수 없이 예수와 함께”¹⁴

또한 요한복음 처음에 등장하는 로고스 성육신 사상은 요한복음이 유대 지혜전승에 큰 영향을 받았음을 말해준다. 즉, 요한복음 서문(1:1-18)의 로고스 찬가는 유대 진혜 전승의 신성한 지혜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¹⁵ 그 외에도 예수의 “에고 에이미” 진술은 전형적인 유대 지혜문학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유대 지혜 전승은 시대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11 Matthew C. Versdahl, “The Birkat Ha-Minim and its Relationship to the Johannine Situation in the First Century,” unpublished master thesis (George Fox Uni. 2006), 10-29.

12 위의 글, 7-8.

13 Klaus Wengst, Das Johannesevangelium, 11-15.

14 박경미, 『예수없이 예수와 함께: 요한공동체의 문학과 신학』은 당시 요한공동체의 상황을 간결하면서도 매우 적절하게 표현한 표제어를 사용하고 있다.

15 김형동, “복음서에 나타난 지혜전승과 그 함의성,” 『신약논단』, 20(2013), 20-21. 참조: Ingo Broer, Einleitung in das Neue Testament, W rzburg: Echter, 2006), 212-214.

북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남 유대는 주전 587년에 패망한 뒤, 유대인들은 세계로 흩어져 나라없는 백성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당시의 정치·문화 속에서 나라를 잃었다는 것은 그들이 믿었던 종교와 신(神)도 사라지는 것을 의미했다. 즉 이스라엘과 유다의 패망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세상에 흩어져서 그곳의 이방 종교와 문화를 수용하며 살아가야 했다. 이방세계의 언어, 그들의 습관, 그들의 문화와 종교 속에서 함께 살아야 했다. 그들이 접하는 것은 늘 하나님 없는 문화였고, 여호와 없는 종교였다. 따라서 신앙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없는 이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지 그것을 필사적으로 찾으려 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신앙의 과제였다. 이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세상과 등을 돌리고 혼자서 삶을 사는 것이었고, 본질을 회복하라는 예언자의 목소리는 이미 지나가버린 하소연에 불과했다.

어떻게 하나님 없는 이 세계, 이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절망적인 신앙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발견하고자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는 책이 구약의 세 번째 묶음, 성문서(Ketubim)고 그 가운데에 지혜문학이 위치하고 있다.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는 이미 완전히 깨어져 버렸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 의식, 계명, 이런 모든 것을 준수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소리내서 찬송할 수도 없고, 이방 나라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 살면서 고유한 이스라엘의 종교문화를 잃어가는 현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성문서 및 지혜문학의 내용들이다. 다시 말해서, 아훼 하나님이 없는 시대,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는 세상 속에서 그들은 명시적인 종교적 계명이나 예전을 추구하기 보다는 이방 세계의 가치관의 세계 속에서 분별의 능력을 찾고자 했다.¹⁶ 예를 들어, 잠언의 지혜에는 이집트의 잠언과 지혜가 수용되고 있지만, 이집트 세상의 문화와 풍습 속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신뢰하려고 분별하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신앙적 몸부림이었다.

필자는 요한복음 공동체가 처한 현실이 과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겪었던 신앙적 현실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판단한다. 과거에 그들에게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 듯이 여겨졌듯이, 그들에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 요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어디에 근거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숨겨져 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신앙의 스승과 선배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박해와 같은 예기치 않는 사건으로 인해 그들 곁에서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유대공동체로부터 축출되어 유대적 정체성마저 단절된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요한 공동체)만 남겨진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에 대해서,¹⁷ 그리고 다음세대 공동체의 신앙적 정체성을 어떻게 양육하고 전수해야 할지에 대해서 절실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고민에 대한 신학적 응답이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은 요한 공동체가 처한 상황을 여실히 드러낸다. 가족인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곁에 예수가 없다. 이 상황에서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상실감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치했던 상실과 슬픔의 자리에 예수께서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에 아쉬움과 서글픔을 느끼

16 Walter Brueggemann, The Creative Word: Canon as a Model for Biblical Education, 강성열 & 김도일 옮김, 『창조적인 말씀: 통한 기독교교육』(서울: 한들, 2011), 156-167.

17 Eckart Reinmuth, Hermeneutik des Neuen Testaments: Eine Einf hrung in die Lektüre des Neues Testaments (G 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2), 22.

고 있다. 예수의 부재(不在)로 인해 그런 슬픔이 닳았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11:21,32). 하지만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다른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상황을 알고 계셨고, 예수께서는 그들과 멀리 계셨던 것이 아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느낀 예수의 부재는 오해였다.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의 부재는 예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예수가 눈 앞에 있지 않다는 것이 예수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생명이라는 믿음의 상실, 희망의 상실이 엄밀한 의미의 예수의 부재를 말한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고통과 슬픔의 자리를 느끼고 알고 계셨고,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신다. 예수께서 함께하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본문이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감히 요한복음서를 다음세대의 신앙을 고민하던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복음서라고 이해하려고 한다. 그리고 당시 요한공동체가 처한 상황과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이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모든 권위와 관심을 다 빼앗긴 현실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명시적으로 전하기도 어렵고, 그 외침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앙의 전승과 교육을 이어갈 것인가? 그리스도와 복음의 존재감과 권위가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됨의 모습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 확장시켜나갈 것인가? 그것이 과거 성장기에 있었던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큰 판단착오가 될 것이다. 너무 거대해진 세상의 문화와 가치 아래서 우리는 그것들과 관계하고 소통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별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됨의 새로운 판단과 해석이 필요하리라.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은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한국 교회가 신앙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확립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제 요한복음이 제시하는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의 의미가 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IV. 요한 복음의 신앙: 단계적 신앙

1. 단계적 신앙에 관한 선행 연구

이미 요한복음의 신앙을 단계적으로 이해하려는 학자들이 있었다. 카이저(R. Kysar)는 요한복음서의 저자가 기독교로의 개종보다는 양육을, 복음전도 보다는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돌보는데 주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고 요한복음의 신앙은 정적인 개념이 아니고 긴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동적인 개념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신앙을 크게 세 단계의 여정으로 보았다.¹⁸ 신앙의 첫째 단계는 가장 기초적 신앙, 아직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지만 신앙에 호기심과 개방성을 갖고 있는 단계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요한 및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께로 찾아온 제자들의 모습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단계는 표적신앙의 단계다. 카이저는 요한복음이 공관복음의 기적을 표적이라는 표현으로 이해함으로써 신앙 개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고 본다. 그는 7개의 표적을 검토하면서 초반부의 표적은 육신적 필요와 관련된 표적이었지만 후반부의 표적은 영적 차원의 필요(생명)와 관련된 표적으로 달라졌음을 지적한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성숙한 신앙이다. 이 신앙은 표적 없이 믿을 수 있는 신앙, 보지않고도 믿을 수 있는 신앙이다. 도마의 의심 본문을 예로 들 수 있겠다. 표

18 Robert Kysar, 『요한복음서 연구』, 53. 171-173.

적 신앙을 통해 훈련받은 제자들은 표적 없이 전적인 신뢰로 그리스도를 신앙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해 간다고 보았다.

브라운(R. Brown)은 요한복음 전체의 신앙을 단계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이 치유를 받아 그리스도를 믿게되는 과정에서 믿음의 단계가 있음을 발견했다.¹⁹ 맹인을 치유하고 이 치유로 인한 논쟁과정에서 맹인의 믿음이 단계적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처음엔 치유(표적)를 통해 갖게된 믿음이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성장한다. 특별히 예수에 대한 맹인의 호칭의 변화에서 그러한 신앙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처음에 맹인은 기적 사건에 대한 확증은 하였지만, 예수를 모른다고 말한다(11-12절). 그러다가 바리새인들의 심문 중에 맹인은 예수를 선지라(17절)로,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33절)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와의 대화(35-39절)에서 맹인은 “인자를 믿느냐”는 예수의 질문에 장신의 확신을 고백한다(38절).²⁰

첼(J. Nützel)은 요한복음을 그리스도의 부재 속에서 그리스도 신앙을 유지하고자 했던 요한공동체의 신앙교육적 관점에 주목하였다. 요한복음이 그리스도의 현재성(실현된 종말론)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하겠다. 첼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신앙의 단계를 명확하게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복음서 안에 두 개의 신앙 구조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첫째는 증언(Zeugnis)과 그 증언에 대한 반응으로서 믿음(Glauben)의 구조이고, 둘째는 바라봄(Sehen)과 인식(Erkennen 깨달음) 그리고 공동체의 신앙(Glauben 그리스도와 함께 거함)의 관계 구조다.²¹

컬페퍼(R. Culpepper)는 요한복음 전체에 걸친 분석을 통해 요한복음안의 신앙을 세 단계 구조로 제시하였다. 첫째는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 둘째는 선포된 말씀을 이해하고 믿는 신앙, 그리고 셋째는 삶을 통한 신앙(모범)이다.²² 필자는 이러한 선행 연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네 단계의 신앙구조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요한복음 신앙의 단계 구조

먼저 요한복음의 단계적 신앙을 4단계로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2] 요한복음에 나타난 신앙의 단계 구조

	1	2	3	4
표적 (semeia)	2/4/5/6(1)/6(2)/9/11			
인식 (anagnorisis)	오해	6(떡)/8(빛)/10(문)/10(목자)/11(부활)/14(길)/15(나무)		
모범 (hypodeigma)			13(세족식)/14(사랑)/18-19(십자가)	
보혜사 (parakletos)				14/15/16

19 Raymond E.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I-XII, vol.1 (NY: Anchor Bible, 1966).

20 박경미, 『예수없이 예수와 함께: 요한공동체의 문학과 신학』, 45-47도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맹인의 태도 변화에서 신앙의 변화를 발견하였다.

21 P. Johannes M. Nützel, “Komm und sieh Wege zum sterliche Glauben im Johannesevangelium,” in: Auferstehung Jesu Auferstehung der Christen, von hrg. Ingo Broer u.a. (Freiburg: Herder, 19896), 162-165.

22 R. A. Culpepper, 『요한복음 요한서신』, 136-138.

■1단계 표적신앙: 보고 믿는 믿음

요한복음 신앙의 첫단계는 표적 신앙, 즉 보고 믿는 믿음이다. 표적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고 믿음의 반열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요한복음은 무작정 믿으라고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다. 요한복음은 이미 1장에서 예수에 관한 증언과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을 향해 예수는 “와 보라”(1:39)고 말한다. 또 요한복음은 ‘의심’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나다니엘이 예수의 소문에 대해서 의심했던 것은 합리적 행위로 인정받는다.

첫째 단계의 신앙인 표적 신앙은 요한복음의 제1부에 해당하는 1-12장에 한정되어 등장한다.²³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표적이 등장하는데 초반부의 다섯 표적과 후반부 두 표적은 성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카이저가 지적하고 있듯이, 초반 5개의 표적은 주로 육체의 문제에 해당하는 (음식/병/외부 상황으로 인한 두려움) 표적이라면 6-7 표적은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표적이다.²⁴ 6-7 표적은 신앙의 둘째 단계와도 관련이 있는데 처음 다섯 표적이 끝난 후 예수께서는 표적을 보고 믿는 이들을 향해 둘째 단계의 신앙교육을 시작하시기 때문이다.

[표3]: 일곱 표적

2장 :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 5장(1): 왕의 신하를 고치심 5장(2): 38년된 병자를 고치심 6장(1): 오병이어로 오천명을 먹이심 6장(2): 물위를 걸으심	육체적 부족/문제/의 치유 심리적 불안의 치유
첫 번째 예고 에이미(생명의 떡) - 6:35 베드로의 고백 6:67	
9장 : 안식일에 맹인을 고치심 11장: 나사로를 살리심	영적 문제의 치유 영적 시각의 문제 신앙적 죽음의 문제

첫째 단계의 신앙은 7번의 표적(기호)에 근거하여 신앙을 갖게 되는 것으로서, 요한복음은 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한다. 예수께서는 표적만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일을 거절하셨다(2:24; 6:15) 그리고 표적을 본 이들의 오해가 이미 요한복음 초반부부터 언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오병이어 사건 후에 백성들이 예수를 왕으로 옹위하려는 모습도 표적 신앙의 한계와 오해로 지적되고 있다. 그들은 기적만을 본 것이지 이 기적이 지시하는 표적(기호)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6:26).

■ 2단계 깨달음의 신앙: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믿음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이해함으로써 얻게 되는 신앙으로, 삶의 행위와 믿음 행위

23 요한복음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요한복음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첫째 부분은 1장~12장으로 예수의 7 표적이 중심을 이루고 예루살렘 입성으로 내용이 마무리 된다. 둘째 부분은 13장~21장으로 예수의 고별담화와 십자가 수난과 부활사건이 주된 내용이다. 22장은 요한복음의 부록으로 간주된다. 참고: Ludger Schenke, Johannes : Kommentar (Düsseldorf: Patmos, 1998); Klaus-Michael Bull, Bibelkunde des Neuen Testament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9). Raymond E.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I-XII, vol.1 (NY: Anchor Bible, 1966), 529은 제1부(1-12장)를 표적의 책, 제2부를 영광의 책(13-21)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24 Robert Kysar, 『요한복음서 연구』, 172.

가 상호 긴밀한 연관을 맺는다. 특별히 이 둘째 단계 신앙과 관련되는 것이 예수께서 자신을 은유적 표현으로 설명하시는 7번의 “예고 에이미” 본문이다.

■생명의 떡(6:35)

■세상의 빛(8:12)

■양의 문(10:7,9)

■선한 목자(10:11)

■부활과 생명(11:25):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곱번째 표적

■길, 진리, 생명(14:6): 예수의 고별담화에 등장

■참 포도나무(15:1,5): 예수의 고별담화에 등장

하지만 예수의 “예고 에이미”는 많은 이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 오해로 말미암아 많은 제자들이 예수 곁을 떠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6:66).

여러 학자들은 이 둘째 단계에서 ‘오해’가 독자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오해가 이해의 걸림돌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의 진정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오해의 장면은 마치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요한복음 기자의 숨겨진 특별한 장치처럼 보이기도 한다.²⁵

컬페퍼는 요한복음에서 오해가 이해에 주는 긍정적 효과를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오해는 두 집단(이해집단과 오해집단)의 거리와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둘째, 독자로 하여금 본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신학적 관점을 더 정교하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결국 독자에게 복음서를 읽어나가는 올바른 태도와 방식을 가르쳐 준다.²⁶ 결국 오해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고 에이미”의 수수께끼를 대화 상대자와 청중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때, 거꾸로 독자들은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끔 도와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²⁷

특히 요한복음에서 이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나그노리시스(anagnorisis), 발견이란 개념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등장하는 아나그노리시스(발견/인식)는 “이전에 몰랐던 어떤 사람의 정체에 대한 깨달음”을 의미한다. 무지에서 앎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아나그노리시스를 통해 상대를 사랑하게도 되고, 적대감을 표출하게도 된다. 아나그노리시스는 사람들의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도 나쁜 방향으로도 나아가도록 결정한다.²⁸ 정리하면, 믿음의 두 번째 단계인 깨달음의 신앙은 새로운 인식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를 정립하는 단계다. 이것은 인지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태도를 이끌어내는 인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깨달음의 신앙은 세 번째 단계인 모범의 신앙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25 서종적, 『요한복음 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112); Paul N. Anderson, “Bakhtin’s Dialogism and the Corrective Rhetoric of the Johannine Missunderstanding Dialogue,” in: Bakhtin and Genre Theory in Biblical Studies, by ed. Roland Boer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7); 133-159; Edwin E. Reynolds, “The Role of Missunderstanding in the Fourth Gospel,” Journal of the Adventist Theological Society, 9(1998), 150-159.

26 R. Alan Culpepper, Anatomy of the Fourthe Gospel, 박경미 옮김, 『요한복음 해부: 서사비평으로 보는 제4복음서』 (서울: 알맹, 2021), 247-252.

27 박경미, 『예수 없이 예수와 함께』, 85.

28 R. Alan Culpepper, 『요한복음 해부: 서사비평으로 보는 제4복음서』, 130-131.

■ 3단계 모범의 신앙: 열매를 맺는 믿음

셋째 단계의 신앙은 모범의 신앙, 본을 보이는 신앙이다. 셋째 단계의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행위와 행위의 결과에 주목한다. 모범의 신앙은 요한복음의 두 번째 부분이 시작하는 13장부터 등장한다. 소위 예수의 고별담화에 등장하는 세 번째 단계의 신앙은 말이 아닌 행위로 시작된다. 스승이신 예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신 것이다. 발을 씻김은 특별한 상징적 행위다.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구체적인 표현이며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최고의 표적이다. 진리를 깨닫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 모든 권위와 형식에서 벗어난 - 자유의 행위이기도 했다. 모범의 신앙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세상 모두를 향한 희생으로 이어지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 완성된다. 모범(hypodeigma)의 신앙은 공동체를 하나되게 하며, 사랑과 헌신, 자유와 희생의 행위를 통해 세상의 드러낼 수 있는 열매이기도 하다.

13장: 제자들의 발씻기심 낮아지심과 자유로움

14장: 길, 진리, 생명 (여섯째 예고 에이미)

15장: 참 포도나무와 가지/하나됨 (일곱째 예고 에이미)

18-19장: 십자가의 희생

■ 4단계 보혜사 성령의 신앙 :그리스도 현재성의 믿음

요한복음의 마지막 단계의 신앙은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이다. 보혜사(παράκλητος)는 그리스도인들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보혜사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고 난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영이다. 보혜사의 주된 역할을 지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수수께끼 같은 말씀의 의미와 그분의 삶의 비밀을 알게 해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현실성, 그리스도의 현재성을 고백하고 발견하게 하는 믿음이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떠나가신 후에, 진리의 영, 보혜사가 오면, 신앙공동체는 완전하게 예수 그분의 삶과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 또 보혜사(조력자)가 공동체를 예수에 대한 (참된) 앎과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점에서, 예수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확장된다. 다시 말해서 보혜사를 통해 신앙공동체는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진정한 생명의 능력으로 믿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신앙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의 새로운 시작점을 만들고 확장시킨다. 보혜사의 경험은 인간들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현실성에 대한 고백이며, 그들 곁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하심의 발견이다. 이로 말미암아 요한 공동체는 그리스도 없는 이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아직 완결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게 된다.²⁹

V. 닫는 글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나타난 신앙의 문제를 교수학적 시각에서 살펴본 결과, 필자는 요한복음을 통해 표적 신앙 깨달음의 신앙 모범의 신앙 보혜사 성령의 신앙, 이렇게 4단계적 신앙구조를 도출하였다. 물론 요한복음에는 단계적으로 드러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신앙의 단계를 지나치게 단계식으로 도식

29 Eckart Reinmuth, Hermeneutik des Neuen Testaments, 22-25. 송진순, “파라클레토스의 구현체로서 요한공동체(요 16:7-15),” 『피어선 신학논단』 7(2018), 38-42.

화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신앙이 가지고 있는 다면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대가 다양해졌고, 시대가 다변화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시대의 물음에 응답할 수 있는 다각적인 신앙 이해와 신학적 태도의 정립에 이 연구가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닫고자 한다.

[참고문헌]

Alkier, Stefan. Neues Testament. Tübingen: A.Francke, 2010.

Anderson, Paul N. “Bakhtin’s Dialogism and the Corrective Rhetoric of the Johannine Missunderstanding Dialogue.” In: Bakhtin and Genre Theory in Biblical Studies, Boer, Roland, Ed.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7, 133-159.

Broer, Ingo. Einleitung in das Neue Testament. Würzburg: Echter, 2006.

Brown, Raimond E.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I-XII. Vol.1. NY: Anchor Bible, 1966.

_____. 『요한교회의 신앙과 역사』 최흥진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0.

Brueggemann, Walter. The Creative Word: Canon as a Model for Biblical Education. 강성열 & 김도일 옮김. 『창조적인 말씀을 통한 기독교교육』 서울: 한들, 2011.

Bull, Klaus-Michael. Bibelkunde des Neuen Testament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9.

Culpepper, R. A. The Gospel and Letters of John. 박경미 옮김. 『요한복음 요한서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_____. Anatomy of the Fourth Gospel. 권종선 옮김, 『요한복음 해부: 서사비평으로 보는 제4복음서』 서울: 알맹이, 2021.

Gench, Francis. Encounters with Jesus. Louisville: WJK, 2007.

Griesmer, Dirk. In den Prozess verwickelt. Frankfurt/M, 2000.

Kysar, Robert. John: The Maverick Gospel. 나채운 옮김. 『요한복음서 연구』 서울: 성지출판사, 1996.

Martyn, J. L. History and Theology in the Fourth Gospel. Nashville: Abingdon Press, 1979.

Nitzel, P. Johannes M. “Komm und sieh Wege zum ewigen Glauben im Johannesevangelium.” In: Broer, Ingo u.a. Auferstehung Jesu Auferstehung der Christen. Freiburg: Herder, 1989.

Recoeur, Paul. The Rule of Metaphor. trans. by Czerny, R. London: Routledge, 2004.

Reinmuth, Eckart. Hermeneutik des Neuen Testaments: Eine Einführung in die Lektüre des Neues Testament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2.

Reynolds, Edwin E. “The Role of Missunderstanding in the Fourth Gospel.” Journal of the Adventist Theological Society. 9(1998), 150-159.

Sanger, Dieter & Mell, Ulrich. Paulus und Johannes. Tübingen: Mohr Siebeck, 2014.

Schenke, Ludger. Johannes : Kommentar. Düsseldorf: Patmos, 1998.

Schnackenburg, Rudolf. Jesus Christus: Im Spiegel der vier Evangelien. 김평학 옮김.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 왜관: 분도, 2009.

Schneiders, Sandre M. Written That You May Believe. NY: Herders & Herders, 1999.

Schwankl, Otto. Licht und Finsternis: Ein metaphorisches Paradigma in den johanneischen Schriften. Herder's Biblical Studies. Berlin: Herder, 1995.

Versdahl, Matthew C. “The Birkat Ha-Minim and its Relationship to the Johannine Situation in the First Century.” Unpublished Master Thesis. Newberg: George Fox Uni., 2006.

Wengst, Klaus. Das Johannesevangelium. Stuttgart: Kohlhammer, 2019.

고원석. 『현대 기독교교육 방법론』 서울: 장신대출판부, 2018.

김형동. “복음서에 나타난 지혜전승과 그 함의성.” 『신약논단』 20(2013), 1-31.

박경미. 『예수없이 예수와 함께: 요한공동체의 문학과 신학』 서울: 이화여대출판부, 2013.

서종적. 『요한복음 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112.

송진순. “파라클레토스의 구현체로서 요한공동체(요 16:7-15).” 『피어선 신학논단』 7(2018), 26-49.

고원석 박사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다 다음세대를 위한 요한복음: 성서교수학적 고찰” 에 대한 논평

조재형 박사_강서대학교 학술연구교수, disciples.cho@gmail.com

이 논문은 신약성서 학자의 전문적인 요한복음에 관한 연구라기보다는 실천적이고 교육적인 방법론과 내용으로 요한복음을 고찰하고 있어서, 성서학자들과는 다른 요한복음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 사역의 시작과 비교해서 요한의 “예수는 가나의 어느 가정이 치르는 혼인 잔치 자리에 초대받는 것으로 첫 공생애 사역이 시작된다. 권위의 자리, 능력의 자리가 아니라 일상적인 자리다.”라는 신선한 해석을 제시한다. 요한복음의 독특성을 유대 전통과 문화와 언어의 단절에 기반한다는 주장도 간결하게 다뤘지만,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즉, 발표자는 “요한복음 공동체가 처한 현실이 과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겪었던 신앙적 현실과 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판단하여, 이 공동체의 신학적 응답이 요한복음 11장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이런 측면에서 요한복음이 “다음세대의 신앙을 고민하던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복음서라고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주장은 한국교회 현실과 교육을 위해서 적절하다. 이 논문의 최대 장점은 요한복음의 신앙을 4단계로 분석하여, 오늘날 성서교수학의 방법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의 성서교수학적 접근이 가지는 장점과는 별도로,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논평자는 이 논문이 요한복음의 신학과 내용을 교회 현실과 기독교 교육의 관점에서 큰 그림으로 잘 그리고 있으나, 세부적인 부분이 잘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느낀다. 그래서 발표자의 논지를 강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한다.

2쪽에서 발표자는 4 복음서의 어휘 수를 비교하는 표를 제시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어휘 수의 기준이 헬라어인지 한글인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이를 측정한 프로그램이나 출처 표기를 한다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

발표자는 요한복음이 “감각적인 복음서”라고 설명하면서, 그 예로 ‘보다’라는 동사의 사용을 제시하고 있다. 요한복음이 감각적인 복음서라는 점을 포착한 것은 요한복음 이해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런데 발표자가 그 범위를 ‘보다’라는 측면만 다룬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보다’라는 표현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특히 마가복음)에서도 헬라어 ‘이두’를 통해서 잘 드러난다. 오히려 요한복음은 만지고, 먹고, 마시고, 듣다 등의 표현도 많이 나온다. 도르디 리(Dorothy Lee)의 논문이나 논평자의 글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¹

3쪽에서 발표자는 요한복음의 예수는 “다른 복음서에 묘사되고 있는 예수보다 훨씬 인격적이고 인간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많은 논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의 예수가 가장 인간적이고, 그다음에 마태/누가, 마지막으로 가장 신적으로 예수를 묘사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학자들은 주장한다. 요한복음의 예수는 누가 제자가 될지,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자신의 수난이 어떻게 될지를 모두 알고 있으며, 모든 과정과 사람을 신으로서 모두 통제하고 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의 수난은 고난을 가장한 예수의 신적 영광을 묘사하고 있다.² 물론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요셉의 아들’로 묘사하여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므로(요 1:45, 6:42) 발표자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³ 발표자의 의도는 하나님인 예수가 직접 이 땅에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모습을 강조하려는 것이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묘사되는 예수의 더 인간적인 모습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논문의 객관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표현에서 존대법 대신 평서법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다. (예,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떠나가신 후에->예수가 아버지께로 떠나간 후에 등등).

본 논평자는 발표자의 논문을 통해서 성서학자의 궁극적인 교육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전공한 분야의 학회가 아닌 곳에서 의미 있는 논문을 발표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요한복음의 가치를 환기해준 발표자에게 감사와 박수를 보낸다.

고칠 것들

다음세대->다음 세대

자리에 초대받는->자리에 초대받는다

점에서정경화 과정도->점에서 정경화 과정도

4쪽, 기호(semeia)라고 부르고 있다-> 표적(semeia)이라고 부르고 있다.

9쪽, 논쟁과정에서->논쟁 과정에서

기적 사건에 대한->기적 사건에 대해

1 Dorothy Lee, "The Gospel of John and the Five Senses," JBL 129, no. 1 (2010): 115-27; Jae Hyung Cho, This Is My Flesh: John's Eucharist and the Dionysus Cult (Eugene: Pickwick Publications, 2021), 120-21.

2 조재형, 『그리스-로마종교와 신약성서: 그리스도교의 기원에 대한 사상사』 개정증보판 ed. (서울: 감은사, 2021), 302-08.

3 Ibid., 223.

요한복음의 생태적 읽기의 가능성에 대한 소고: 새 창조의 성전으로서 예수를 중심으로

신현태 박사_장신대 신약성경학과 교수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창조 세계 구성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와 기후변화(climate change)로 야기된 기후위기(climate crisis)이다. 여기에는 생태계 파괴로 인한 각종 동 식물들의 멸종 뿐 아니라 온갖 질병과 자연 재해로 인류를 위협하는 위기가 포함된다. 신학을 창조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응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생태환경 문제를 고려한 성경신학의 수립이 절실하다. 1967년 린 화이트(Lynn White Jr)가 생태위기의 원인을 서구 기독교의 인간중심주의로 규정한 이후 성경신학자들은 성경을 통한 생태환경문제 논의를 거부하는 “반 생태적 성경신학”과 성경본문의 생태적 지해를 발견하려는 “회복의 성경신학”, 그리고 여섯 가지 생태정의 원칙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의심, 저항, 복원의 성경신학”이라는 세 가지 큰 방향성을 가지고 성경과 생태환경 문제를 연구해 왔다.² 본 연구는 위의 세 가지 모델을 보완한 데이빗 호렐(David G. Horrell)과 어니스트 콘라디(Ernst M. Conradie)의 생태성경신학을 이용하여 요한복음에 묘사된 성육신한 예수를 새 창조의 성전으로 제시하여 이것이 어떠한 생태적 함의를 드러낼 수 있는지에 관해 논해 보고자 한다.

요한복음은 생명과 구원, 기독교론, 십자가와 속죄, 이원론, 반-유대주의, 실현된 종말론 등과 같은 다양한

1 Lynn White Jr,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Science 155 (1967): 1203-07.

2 데이빗 G. 호렐, 『성서와 환경: 생태성서신학 입문』 이영미 역 (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2014), 30-44; 신현태, “생태성서 해석학에 대한 소고 -데이빗 호렐(David G. Horrell)과 어니스트 콘라디(Ernst M. Conradie)의 나선형 성경해석을 중심으로-” Canon&Culture(개논앰컬처) 15, no.2 (2021): 5-44. 필자는 “생태성서해석에 대한 소고” 논문에서 세 가지 생태적 성경해석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논의한 후 보완적 생태성경해석 모델로서 호렐과 콘라디의 생태성경해석을 제안하였다.

신학적 주제를 담고 있기에 연구자들이 여러가지 관점으로 해석해 왔다.³ 본 연구와 연관된 새 창조와 성전 모티브에 초점을 맞춰 요한복음을 해석한 학자들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송영목은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를 성육신을 통한 새 창조 사건으로 본다(배경, 1:1-51).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새 창조가 실현되며 예수의 제자들이 이러한 새 창조의 사역을 계승 발전 시키도록(발전, 2:1-17:26) 성령을 받게되며, 새 창조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정점에 도달한다고(결론, 18:1-21:25)보았다.⁴ 특히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한 열심이 출애굽과 새 창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보며 이스라엘의 출애굽사건을 새로운 창조 사건으로 본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를 새롭게 창조하고 완성하는 중심 인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출애굽(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어둠과 사망에서 탈출한 신약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한다”⁵고 강조한다.

권해생은 새 창조를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로 간주하여 새 창조와 연관된 표적,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전 모티브가 요한복음 전체에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밝히는데 주목한다. 그는 요한복음 전반부(1-12장)에 등장하는 여섯 개의 표적을 빛과 생명의 근원인 예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적기사로 이해한다. 또한 그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장소인 ‘동산(κῆπος)’을 에덴 동산과 연결하여 아담 기록론적 함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요한복음 후반부(13-21장) 내러티브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새로운 창조의 열매로 본다. 마지막으로 그는 새 창조와 성전 신학을 연결한다. 그는 최초의 성전을 에덴 동산으로 규정하며, 이 성전은 예수의 몸을 통해 현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후 신자는 성령을 수여받아 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성전이 되고,⁶ 이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새롭게 출발한다고 주장한다.⁷

정다운은 성전 신학의 관점으로 요한복음 전체를 해석한다. 특별히 그녀는 말씀의 성육신(1:14)에 나타난 성전 모티브를 모형론적으로 해석하여 구약성경에 나와있는 성전 모형들, 예를 들어, 에덴, 베엘, 그리고 성막과 성전의 기능들이 예수에게서 발견되며 더 나아가 성취 완성된다고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나타나는 성전 기능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해한다.⁸ 또한 그녀는 요한복음의 전체 구조를 예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증언과 신앙공동체의 믿음의 응답으로 이해하여 요한복음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의 초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숙고해 보는데 있다”⁹고 결론 짓는다.

간략한 국내의 연구를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선행된 연구들은 요한복음의 새 창조와 성전 모티브를 다방면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 사역과 성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창조 세계와 긴밀하게 연관시키고 이를 고려하여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태환경문제에 대한 성경신학적 대응의 일환으로, 요한복음의 성육신과 성전, 그리고 새 창조의 모티브를 호렐과 콘라디의 생태성경신학의 렌즈로 읽어 보려 한다.

3 도널드 헤그너, 김귀탁 역 『신약개론: 역사적 신학적 서론』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4), 421-26.

4 송영목, “요한복음의 창조주제”, 『교회와 문화』 제 23호 (2009), 158.

5 송영목, “요한복음의 창조주제”, 173.

6 권해생, “요한복음의 새 창조 모티브: 표적, 십자가와 부활, 성전”, 『신약연구』 제 16권 4호 (2017): 135-75.

7 권해생, “예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신약연구』 제 17권 4호 (2018): 526-55.

8 정다운, “요한복음의 기독교적 성전 신학: 성육신에 나타난 성전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75 (2022): 177-212.

9 정다운, “요한복음의 기독교적 성전 신학”, (미간행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21), 5.

II. 데이빗 호렐(David G. Horrell) 어니스트 콘라디(Ernst M. Conradie)의 생태성경신학

영국 엑서터 대학(University of Exeter)은 3년(2006-2009) 동안 영국의 인문학회(the Art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AHRC])의 재정지원을 받아 “환경윤리를 위한 성경 사용(Uses of the Bible in environmental ethics)”이라는 주제로 엑서터 프로젝트(the Exeter Project)를 실시하였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생태환경 윤리에 관한 폭넓은 시각의 기독교 신학을 설립하기 위해 성경 신학자 뿐 아니라 조직신학, 역사신학, 기독교 윤리학 분야의 전공자들을 초청하여 간학문적인 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를 진행하였으며 그 연구 결과로 『성서와 환경』(The Bible and The Environment: Towards a Critical Ecological Biblical Theology)¹⁰, “성서 해석학: 성서적, 역사적, 신학적인 관점을 통해”(Ecological Hermeneutics: Biblical, Historical and Theological Perspectives)¹¹, “생태위기 상황에서 다시 읽는 바울서신”(Greening Paul: Rereading the Apostle in a Time of Ecological Crisis)¹²라는 제목의 도서가 2010년 출판되었다. 데이빗 호렐과 어니스트 콘라디의 생태성경신학은 이 프로젝트에서 기인된 것이다.

호렐과 콘라디의 생태성경신학은 성경 본문과 기독교 전통 그리고 상황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고려한 성경해석을 추구한다. 호렐과 콘라디는 성경해석을 특정 성경 본문에 대한 하나의 변하지 않는 고정된 의미를 발견해 내는 것이 아니라 비평적인 성경주석과 함께 현재까지 진행 되어온 기독교 신학 전통(성서신학, 조직신학, 기독교 역사학, 예배학, 기독교 윤리 등)과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 현재적인 상황을 고려한 건설적인 해석적 작업으로 이해한다. 이들은 이러한 성경해석의 이해를 토대로 인류가 처한 생태환경위기의 상황속에서 성경을 통한 생태환경신학의 확립을 제안하며, 이에 바탕을 둔 기독교 윤리 원칙을 제시한다. 따라서, 호렐과 콘라디는 신약성경 본문 내에 생태, 자연, 창조 세계, 피조물 등과 관련된 단어와 개념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성경 저자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창조 세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였는지를 제시한다. 호렐과 콘라디는 올바른 생태성경해석을 위해 기준으로 삼아야 할 세 가지 성경해석 원칙을 제안하는데, 이들은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 이들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성경본문에 대한 비평적인 주해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 주해작업은 성경본문이 고대의 정치, 사회, 문화속에서 기록된 신학적 신앙적 문서임을 인식하게 하여 본문을 주의 깊게 읽고 해석하는데 도움을 준다.¹³

두 번째, 기독교 전통에서 강조된 교리와 신조 그리고 예전을 고려하여 현대적인 문제와 기독교 윤리 사이의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과정은 기독교 신학과 윤리가 어떻게 현대의 문제와 요구에 비추어 재구성되고 재정립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생태문제와 같은 현대의 문제들을 새로운 주제로 제시하면서 전통 교리를 ‘다시-형성(개혁)’하는 방식”¹⁴을 제공한다.

세 번째, 인류가 처한 생태환경문제의 이해를 위해 간학문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비록 현대 과

10 데이빗 G. 호렐, 이영미 옮김 『성서와 환경: 생태성서신학 입문』 (오산: 한신대학교출판부, 2014); David G. Horrell, The Bible and The Environment: Towards a Critical Ecological Biblical Theology (Oakville, CT: Equinox, 2010).

11 Ecological Hermeneutics: Biblical, Historical, and Theological Perspectives ed. David G. Horrell, Cheryl Hunt, Christopher Southgate and Francesca Stavrakopoulou (London and New York: T&T Clark, 2010).

12 Horrell, Hunt, and Southgate, Greening Paul: Rereading the Apostle in a Time of Ecological Crisis (Waco, Texas: Baylor University Press, 2010).

13 호렐, 『성서와 환경』, 223.

14 호렐, 『성서와 환경』, 223.

학의 결과가 성경의 가르침과 상반된 결과와 증거를 제시하는 위험성이 있을지라도 간학문적 연구의 결과에 대한 비판적 수용은 성경본문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¹⁵

필자는 호렐과 콘라디가 제안한 생태성경해석 과정에 하나의 요소를 더 첨가하고자 한다. 그것은 생태성경신학을 위한 해석 작업은 정경적인(canonical) 성격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다. ‘성경 신학’이라는 단어는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 곧 성경 전체 내용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 이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¹⁶

호렐과 콘라디는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의 생태적 성경해석 원칙을 촉진시키는 것이 ‘교리적 준거들(doctrinal constructs)’이라고 주장한다. 이 교리적 준거들은 기독교 신학에서 강조되는 지배적인 신념, 교리, 가치, 관습 및 습관을 기초로 하여 형성되는데, 이것들은 성경본문이나 현대적인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된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 기독교 전통 그리고 상황 사이의 관계를 구성하려는 이전(以前) 시도의 산물이다.¹⁷ 이러한 교리적 준거들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관행과 습관화를 통해 기독교 해석 전통을 형성, 유지, 발전 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호렐의 말을 인용한다면, 교리적 준거들은 “어떤 성서해석 전통에 집중하고 그것을 형성시키는 일종의 양방향 렌즈로서 작용하는데, 이러한 작용에는 특정한 신학적 주제를 대화의 중심 주제로 초대하는 반면 다른 신학적 주제들은 간과하거나 왜곡하여 가치절하시키는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우리의 현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와 반응을 반영한다”고 설명한다.¹⁸

이러한 교리적 준거들이 성경해석의 역사와 성경본문의 이해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행사하는가는 마틴 루터(Martin Luther)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다. 그가 성경본문(특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교리적 준거틀로 사용한 것은 이신칭의(以信稱義)였다. 루터는 가톨릭 교회의 수사로서 모든 사람은 죄사함을 얻기 위해 금욕적인 수행을 거쳐야만 한다는 교육을 받았다.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시대적인 상황속에서 루터는 이 신학적 주제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된다. 결국 루터는 이러한 사회-종교적 상황으로부터 이신칭의(以信稱義)라는 개신교의 교리적 준거틀을 발전시켰고 이 교리적 준거틀은 오늘날에도 성경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루터가 시대적인 상황에 충실했고 그 상황 속에서 나오는 질문과 관심, 그리고 시대적 우선순위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성경 본문과 교리 그리고 기독교 전통과의 연관성과 균형성을 고민하면서 교리적인 준거틀을 만들었으며 이러한 준거틀은 개신교 성경신학이 발전하는데 많은 유익을 끼쳤다는 것이다. 필자는 호렐과 콘라디가 제시한 세 가지의 생태적 성경해석 원칙과 필자가 제안한 정경성 유지의 원칙에 기반하여 요한복음의 생태적 읽기를 위한 두 가지 교리적 준거틀을 제안한다.

1) 모든 창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God’s covenant with all creation):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요 1:14)과 그분의 공생애 사역, 그리고 십자가상에서의 죽음과 부활은 인간을 위해서만이 아닌 모든 창조물의 회복과 구원을 위한 것이다(롬 8:19-23; 골 1:15-20).

2) 창조세계의 일원으로서의 인간(Humanity as part of the community of creation): 하나님의 언약의

15 호렐, 『성서와 환경』, 224.

16 더글라스무, 조너선 무 지음, 송동민 역 『창조세계돌봄: 성경이 말하는 창조 세계와 인간의 관계』 (서울: 조이북스, 2018), 54.

17 Conradie, “What are interpretative strategies?”, Scripture 78 (2001), 436.

18 Horrell, The Bible and the Environment, 122.

성취가 결국에는 그 분의 전적인 개입으로 가능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창조 세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창조된 인간에게 창조세계를 돌보는 소명을 부여하셨다.

본 연구는 ‘모든 창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창조세계의 일원으로서의 인간’이라는 이 두 가지 교리적 준거들을 기반으로 요한복음 서문(1:1-18)을 해석함으로써 새 창조의 성전이신 예수가 모든 창조물의 회복과 구원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드러내보고자 한다.

III. 과학과 요한복음의 수사학

현대 우주론은 우주의 탄생을 약 137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지구상에 생명이 최초로 출현한 때를 대략 37억 년 전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21세기의 우주론과 진화 생물학 이론을 받아들이는 과학적 세계관에 살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현재 환경 문제와 마주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현대 과학의 결과물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또한 어디까지 기독교의 전통과 신학 안에 수용될 수 있는가?

데니스 에드워드(Denis Edwards)는 현대 과학의 영역은 과학적으로 관찰된 증거를 통한 언어를 사용하고 신학의 영역은 하나님의 행동과 같은 신비의 영역을 형이상학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의미와 목적을 만들어 낸다고 이해하면서 신학자들은 이 두 영역의 상호 연결점을 찾는 언어를 만들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에 현대 과학의 발견물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⁹ 사실, “우주”에 대한 고대인들의 인식은 현대인들의 이해와 사뭇 다르며 생태적인 관심도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였던 이들은 생태학적인 관심보다는 그들이 경험하고 이해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후대인들에게 어떻게 잘 전승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가졌다.²⁰ 혹자는 성경이 인간의 죄와 구원,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적으며 따라서 성경을 통해 현대적인 생태환경문제에 대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해답을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일 성경이 현대적인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성경이 성경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성경신학 그 자체는 당대에 직면한 상황에서 발생된 질문과 삶의 문제에 대응하면서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과 면밀히 얽혀있기 때문이다.²¹ 콘라디는 “[성경]해석은 매일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삶의 징후들의 중요성에 반응이며 지속적인 재적절성을 이루고자하는 하나의 방식이자 응용의 한 형태”²² 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곧 성경이 현재의 상황속에서 발생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사용될 수 있고 성경신학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함의가 있다. 즉 성경신학은 수행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마스 올브리히트(Thomas H. Olbricht)는 고대의 저자들은 본문의 수행적 성격을 잘 인식하고 있었고 따라서 의사소통의 의도와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수사학적인 언어를 사용했다고 한다. 특히, 교회와 회당에서 일

19 Denis Edwards, How God Acts: Creation, Redemption and Special Divine Action (Hindmarsh, SA: ATF Theology, 2010), Xii, 1-8.

20 Walter Brueggemann, The Creative Word, 강성열, 김도일 역 『기독교 교육』(서울: 한울출판사, 1999), 17-18.

21 David G. Horrell, “Ecological Hermeneutics: Reflections on Methods and Prospects for the Future,” Colloquium 46/2 2014, 139.

22 Ernst M. Conradie, “What on Earth is an Ecological Hermeneutics? Some Broad Parameters,” in Ecological Hermeneutics: Biblical, Historical, and Theological Perspectives (London and New York: T&T Clark, 2010), 298.

어난 의사 소통(예배, 예전, 기도와 말씀 등)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을 강조하는 현실 참여의 비전이 반영되어있다고 설명한다.²³ 이것은 요한복음과 같은 고대 본문의 독자(그리고 재독자)로서 우리가 수행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한 수사학적 특징에 민감해야 함을 의미한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내용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제 2세대의 신앙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드러낸다. 즉,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분명히 청중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본서를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본문에 명시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20:31). 그렇기에 요한복음의 기독교론의 중심 인물인 성육신 예수에 대한 묘사에서 지구와 환경에 긍정적인 특징을 찾을 수 있다고 인정된다면, 이 복음서를 통해 생태환경과 관련된 주제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요한복음의 서문(1:1-18)의 주요 단어 σάρξ, σῶμα, πάντα의 분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인간의 구원 뿐 아니라 자연 세계의 구속과 화해에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논의를 전개하려고 한다.

IV. 요한복음 서문의 구조와 중심내용(1:1-18)

요한복음의 서문에서 구속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한 창조 신학에 근거한다. 로고스는 창조의 근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셨다. 이 성육신은 창조의 근원인 로고스가 창조의 일부로서 물질 세계에 들어온 사건을 뜻한다. 요한복음의 서문(1:1-18)에 등장하는 태초[에](ἐν ἀρχῇ), 말씀(λόγος), 만물(πάντα)과 세상(κόσμος)이라는 용어들은 육체(σάρξ) 그리고 영광(δόξα)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요한의 상징 세계에 새로운 수사학적 신학적 뉘앙스를 만든다. 요한복음에서 “신비”는 육체(σάρξ)가 된 말씀(λόγος)이다(1:14). 그를 통하여 만물이 생겨나고(1:3), 그 육체(σάρξ)에서 하나님의 영광(δόξα)이 보인다(1:14). 물질성과 생명을 담은 육체(σάρξ)와 만물(πάντα)은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λόγος)과 영광(δόξα)과 상호 연결되어 있다.²⁴ 요한복음 서문(1:1-18)의 구조는 다양하게 나눌 수 있지만 단순히 첫 번째 부분(A)과 세 번째 부분(A’)이 평행을 이루는 교차 대구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구조는 전체적으로 나선형 구조(A-A’)를 띄며 중간 부분(B)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사역의 목적과 영향을 드러낸다:²⁵

교차 대구	중심 내용	구 절
A	말씀(λόγος)을 통해 신성하게 창조된 육체(σάρξ)	1:1-5
B	회복을 위해 믿음이 필요한 육체σάρξ)	1:6-13
A’	말씀(λόγος)을 통해 신성하게 회복된 육체(σάρξ)	1:14-18

23 Thomas H. Olbricht, “Analogy and allegory in classical rhetoric in Early Christianity and Classical culture” in Early Christianity and Classical Culture: Comparative studies in honor of Abraham J. Malherbe ed. John T. Fitzgerald, Thomas H. Olbricht and L. Michael White (Leiden: Brill, 2003), 375-79; 385-89.

24 Kathleen P. Rushton, “The Cosmology of John 1:1-14 and Its Implications for Ethical Action in this Ecological Age”, colloquium 45/2, (2013), 138.

25 요한복음 서문에 대한 더욱 복잡한 교차 대구법은 다음은 참조하시오. R. Alan Culpepper, The Gospel and Letters of John (Nashville: Abingdon, 1998), 77-78, 111-16.

1) 로고스와 만물(1:1-5)

Ἐν ἀρχῇ ἦν ὁ λόγος, καὶ ὁ λόγος ἦν πρὸς τὸν θεόν, καὶ θεὸς ἦν ὁ λόγος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1:1).

Ἐν ἀρχῇ ἦν ὁ λόγος, καὶ ὁ λόγος ἦν πρὸς τὸν θεόν, καὶ θεὸς ἦν ὁ λόγος(1: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1:3).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동적인 말씀이 칠 일 동안 우주를 탄생시키는 창세기 기사와 공명한다(창 1:1-2:4a).²⁶ 이는 “태초에(Ἐν ἀρχῇ)”라는 시작 부분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로고스(λόγος)의 소개(요 1:3)는 창조의 구심점인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의 반복과 유사하며(창 1:3)²⁷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를 탄생시키고 축복하며 “좋다”라고 선언하기에 충분하다(창세기 1:4, 10, 12, 18, 21, 25, 31). 1장 3절은 만물이 로고스(λόγος)를 통해 창조되었고, 창조된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로고스(λόγος)를 통하지 않고는 존재하는 것이 없었다고 설명한다. 이를 통해 구원의 궁극적인 대상으로서 만물(πάντα)을 조명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4-5절의 빛은 창세기 창조 기사에서 가장 처음 창조된 원소이며 빛이 비추어짐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른다. 이 빛은 창조시 최초의 흑암 속에서 비취 졌으며, 또한 타락한 인류의 흑암 가운데 계속 비추어졌다.²⁸ 더욱이 이 모티브는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이 생명과 빛의 궁극적인 종말론적 승리(8:12)의 내러티브로 확장된다. 따라서 이 서문은 이제부터 등장할 이야기가 한 측면에서는 하나님과 세계의 동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되는 창조 변화의 내러티브임을 드러낸다. 그리고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요한복음서의 배경으로 확립되며, 요한복음의 서문 없이는 그 구원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을 수 있다.²⁹

2) 믿음과 육체(σάρξ)(1:6-13)

εἰς τὰ ἴδια ἦλθεν, καὶ οἱ ἴδιοι αὐτὸν οὐ παρέλαβον. ὅσοι δὲ ἔλαβον αὐτόν, ἔδωκεν αὐτοῖς ἐξουσίαν τέκνα θεοῦ γενέσθαι, τοῖς πιστεύουσιν εἰς τὸ ὄνομα αὐτοῦ, οἳ οὐκ ἐξ αἱμάτων οὐδὲ ἐκ θελήματος σαρκὸς οὐδὲ ἐκ θελήματος ἀνδρὸς ἀλλ’ ἐκ θεοῦ ἐγεννήθησαν(11-13).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11-13).

1장 6-13절에서는 믿음과 불신에 대한 주제와 관련되어 “육체(σάρξ)”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이때, 요한이 육체라는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복음서 전체에서 이 용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요한의 육체에 대한 묘사는 복잡하고 섬세하며, 인간의 본성, 몸과 영혼을 대표

26 레이몬드 브라운(Raymond E. Brown)은 요한복음 1:1의 태초[에](τὸ πρῶτον)는 창조의 시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 ‘태초’는 창조에 앞서며, 시간적 영역에 대한 언급이라기보다 질적인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묘사”라고 주장한다. 레이몬드 E. 브라운, 『앵커바이블: 요한복음 I』(서울: CLC, 2013), 215.

27 레이몬드 E. 브라운, 최흥진 역 『앵커바이블: 요한복음 I 표적의 책』(서울: CLC, 2013), 215-16; D. A. Carso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Cambridge, U.K: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1), 113.

28 비슬리-머리 저, 이덕신 역 『WBC 성경주석: 요한복음』(서울: 솔로몬, 2001), 137-8.

29 M. L. Coloe, “Theological Reflections on Creation in the Gospel of John”, Pacifica 24 (2011), 2-4.

하는 화법의 한 형태로 이는 만물(πάντα)과의 연관성을 드러내는 데도 사용된다. 이 육체 자체는 하나님의 창조물(1:3)이지만 빛을 인식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비극적인 맥락 속에 있고(1:10) 죽음을 맞이할 운명에 처해 있으며, 스스로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묘사된다(1:13). 이것은 본질적으로 처음 로고스에 의해 창조(창 1:1-31) 되었을 때 주어진 선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타락 이후,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물 사이에 벌어진 관계를 회복할 능력은 갖고 있지 않다(1:5).³⁰

3) 성육신과 회복(1:14-18)

Καὶ ὁ λόγος σὰρξ ἐγένετο καὶ ἐσκήνωσεν ἐν ἡμῖν, καὶ ἐθεασάμεθα τὴν δόξαν αὐτοῦ, δόξαν ὡς μονογενοῦς παρὰ πατρός, πλήρης χάριτος καὶ ἀληθείας.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14).

Θεὸν οὐδεὶς ἑώρακεν πώποτε· μονογενὴς θεὸς ὁ ὢν εἰς τὸν κόλπον τοῦ πατρὸς ἐκεῖνος ἐξηγήσατο. (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18)

1장 14-18절의 주요한 내용은 그 말씀(λόγος)이 예수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서 요한은 헬라어 명사 사람(ἄνθρωπος)이나 몸(σῶμα)를 사용하지 않고 육체(σάρξ)를 사용한다.³¹ 이 육체(σάρξ)는 회복에 대해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로고스가 육체적 제한성이 따르는 필멸자인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을 통해 아담의 범죄 이후 물질 세계에 드리워졌던 회복할 수 없는 육체의 손상이 회복되는 요한복음의 전체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회복의 사건은 요한복음의 성육신 기독교론의 근원을 이룬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종말의 새 창조가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점이다.³²

V. 육체, 성전 그리고 성육신

요한복음 서론은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λόγος σὰρξ ἐγένετο)”(1:14)고 선언한다. 그렇다면, 이 육체는 무엇과 연관되는가? 인간의 육체만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그 범주를 더 확대하여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지칭할 때도 사용이 가능한가? 고전과 성경에서 σάρξ(육체)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며 그 중 하나는 인간이 다른 생물과 동질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측면이 있었다. 고전에서, σάρξ(육체)라는 단어는 인간과 동물 모두의 “육체”의 일부 혹은 전체를 포함하기도 하였다. 대부분 성경에서, “σάρξ”는 히브리어 바사르(בָּשָׂר)의 다양한 의미를 번역한 것으로 사용된다.³³ 이 용어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육체를 의미할 수 있고(레 12:3; 13:2; 창 17:11, 14) 더 확장된 의미에서는 인간의 몸을 의

30 Dorothy A. Lee, “Creation, Matter, and the Image of God in the Gospel of John”, St Vladimir’s Theological Quarterly 62:2 (2018), 103-04.

31 안드레아스 퀴스텐베르거 저, 신지철, 전광규 역 『BECNT: 요한복음』(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7), 68.

32 송영목, “요한복음의 창조주제”, 174.

33 Eduard Schweizer, “σάρξ,” in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7, ed. Gerhard Friedrich, trans. and ed. Geoffrey W. Bromiley (Grand Rapids: Eerdmans, 1971), 98-105.

미한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서 아담은 하와를 자신과 “한 육체”라 언급함으로써 둘 사이의 깊고 밀접한 연결을 나타냈다(창 2:24-25). 그러나 “σάρξ”는 모든 생물에게도 사용되며, 종종 “모든(πάσης)”이라는 단어가 함께 쓰인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와 함께하며, 홍수의 경우 “모든 육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창 6:13, 17, 19; 7:15, 16, 21; 8:17), 언약 맺음의 대상에도 “모든 육체”가 포함된다(창 9:8-11).³⁴

요한복음 서문은 말씀(λόγος)이 사람(ἄνθρωπος)이 되었다고 하지 않고 육체(σάρξ)³⁵가 되었다고 선언한다. 이러한 선언은 요한복음 17장 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에도 연결된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성육신하신 자신의 아들 예수에게 “모든 육체(πάσης σαρκός)에게” 영생을 부여하고 그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여기서도 사람(ἄνθρωπος)을 사용하지 않고 성육신(1:14)을 묘사할 때 사용한 단어 육체(σάρξ)를 동일하게 사용한다. 이러한 요한복음 저자의 단어 사용을 고려 했을 때 “모든 육체”는 인간만을 의미할 수도 있고 확장된 의미에서 모든 피조물을 지칭할 수도 있다. 또한 πάσης(모든)와 σάρξ(육체) 이 두 단어들이 함께 쓰일 때는 의미가 확장되는 것을 볼 때 신성한 말씀에 의해 창조된 모든 것을 가리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³⁶ 따라서, 모든 육체에 대한 아들의 통치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선언과 나란히 놓여 있다. 육신을 지으신 분이 육신으로 지음을 받는 자로, 모든 생명의 창조주가 살아 있는 피조물이 되는 일견 모순처럼 보이는 두 가지가 하나로 통합된다. 즉, “이 신적 존재는 인간의 형상을 입음으로써 자신을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³⁷

이제 성전주제로 넘어가 보자. 성전신학은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로,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ἐσκήνωσεν’을 사용하여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것을 알린다. 또한 ‘σκηνώω’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계시된 영광과 현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임한 것을 드러낸다. 이 단어는 장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드러내는 히브리어 동사 ‘세키나(שְׁכִינָה)’를 어원으로 가지고 있다.³⁸ 그러므로 여기서는 천상의 성전이 이 땅에서 예수의 육체(σάρξ)에 장막을 치고, 그 위에 하나님의 계시된 영광과 현존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말씀(λόγος)의 성육신은 장막 성전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천상의 성전임을 드러낸다.³⁹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전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곳은 성전 정화 사건(2:13-22)이다.⁴⁰ 이곳에서는 특별히 공관복음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예수와 유대인들과의 성전에 관한 대화가 나온다(요 2:18-20). 유대인들은 예수가 무슨 권위로 성전을 정결케 했는지에 대한 표적을 요청한다. 이에 예수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2:19)라고 응답한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여기서 예

수가 사흘 만에 일으킬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독자들에게 알려준다. 그것은 바로 ‘예수 자신의 육체(σάρξ)’이다(2:21).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는 예수의 말씀이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가리키는 것임을 이해했다고 해설한다.⁴¹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여기서 σάρξ를 사용하지 않고 σῶμα를 사용하여 예수의 몸을 지칭한다. 또한 저자는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의 몸(18-21장)과 예수의 죽은 몸을 가리키는 데도 σῶμα를 사용한다(19:38, 40; 20:12). 따라서, 요한복음에서의 σάρξ와 σῶ마라는 두 용어는 성육신에 암시된 필멸성을 강조하면서도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의 몸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생명이 있음을 암시한다. 복음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을 통해 나타난다고 주장하면서 육체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였다. 예수 몸에 박힌 고난의 상처는 죽음에서 나오는 생명의 상징이기도 하며 그것은 요한적 문맥에서 구원의 핵심이자 상징이고, 이는 물질적 영역이 신성한 실체를 지니는 매개체가 된다. 구약 성경은 일반적으로 신성한 영광을 성막이나 성전에 상주하는 것으로 보지만, 이제 그 내재가 예수의 형상에서 나타난다. 그는 기존에 있는 말씀이 육신화된 존재로서 영광의 영역에 속하며 그 자체에서 신성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새롭고 확정적인 성전이다. 예수의 육체는 필멸자의 운명만을 가진 일시적이거나 막연한 상징이 아니다. 즉, 성막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성육신 예수의 모습은, 예수 공동체의 모델이 된다. 아버지가 자신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낸다(17:18; 20:21). 그러나 제자들의 육체는 성육신하신 예수의 육체와는 다르기에 거기는 생명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오직 필멸성만 존재한다. 그러하기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시고 “성령을 받으라”(20:22)라고 말씀하신다. “숨을 내쉬는” 예수의 행동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은 사건의 반향이다. 여기서 예수는 육체적 생명이 아닌 영적인 힘을 제자들에게 부여함으로써 옛 아담과 후손들이 실패했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⁴² “성령 받음”에 대한 언급은 7장 39절에서 이미 언급되었고 성령 수여의 시기는 “예수가 영광을 받기까지 잠시 늦춰졌다”(7:39). 그러나 예수의 부활이 영광의 상징이라면 예수가 제자들에게 성령을 수여한 행동은 말씀이 육체가 되어 자신이 성육신화된 새로운 성전이 된 것처럼, 성령을 제자들에게 수여하여 그들도 새 성전의 일부가 되고 더 나아가 다른 육체(σάρξ)와 몸(σῶμα)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 경계선을 넓혀나갈 힘을 수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요 17:18-23참조).⁴³ 성육신 하신 예수가 모든 육체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 상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듯이 예수의 영(성령)을 수여받은 제자들도 모든 육체(σάρξ)에게 성전된 예수를 모델 삼아 생명을 수여하는 용서를 선포한다.

교리적 준거들:

모든 창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창조세계의 일원으로서의 인간

필자는 요한복음 서문(1:1-18)을 “모든 창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창조세계의 일원으로서의 인간”이라는 교리적 준거들의 렌즈를 통해 위에 제시된 논의를 재 조명하여, 예수의 성육신과 새로운 성

41 그레고리 K. 비일 저, 『성전신학: 하나님의 임재와 교회의 선교적 사명』(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257.

42 비슬리-머리 저, 『WBC 성경주석: 요한복음』, 685-87.

43 그레고리 K. 비일 저, 『성전신학: 하나님의 임재와 교회의 선교적 사명』, 265-66.

34 Kathleen P. Rushton, “The Cosmology of John 1:1-14 and Its Implications for Ethical Action in this Ecological Age”, Colloquium 45/2 (2013), 146-47.

35 σάρξ 단어는 3장의 예수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육체(σῶμα)와 영’의 두 가지 평행한 영역을 제시할 때도 사용되며(3:6-7),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 예수의 희생적 죽음을 나타내는 ‘살(σῶμα)’을 나타낼 때 사용되지만(6:51-56) 요한은 몇 구절 후 육체가 ‘무익하다’(6:63)고 단언함으로써 여기서는 영생을 부여할 수 없는 능력없는 부정적인 존재의 의미를 함의한다. 8장 15절에서는 육체(σάρξ)를 따라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을 비난할 때 사용된다.

36 Rudolf Schnackenburg,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vol.1 (Seabury: New York, 1980), 171.

37 브라운, 『앵커바이블: 요한복음 I 표적의 책』, 262.

38 김동수, 『요한복음: 요한신학 렌즈로 본』(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6), 49.

39 위의 책, 48-54.

40 성전사건과 예수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신현태, “요한복음의 성전사건에서 드러난 예수의 정체성: 2장 15-17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신약연구』 통권 65호 (2022): 98-130.

전의 의미에서 통전적이면서도 생태적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화는 모든 창조 세계의 육체(σάρξ)와 연결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요한복음 17장 2절은 “모든 육체”가 주로 인간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육체화의 영역 안에 있는 창조 세계 전체를 포괄하는 더 넓은 영역을 시사한다. 요한의 기독교론은 말씀의 정당한 영역으로서 창조에서 시작된다(1:3-4, 10-11).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뿐만 아니라 육체를 가진 피조물과의 연대성도 표현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창조 세계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성에 기인한 창조 기독교론을 언급할 수 있다.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할을 경시하는 경향을 가진 “창조 신학”에 빠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체로 이해했고(요 1:1-3; 히 1:1-3), 이 지체는 하나님의 동반자로서 만물의 창조와 유지에 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으로 여겼다(잠 8:22-31; 시라서 24:3-7; 지혜서 8:1-4).⁴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의 지체와 말씀으로 이해했던 교부 아타나시우스도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육체화된 모든 것들 즉, 우주와 창조세계 모두의 화해를 위한 사건으로 이해한다.⁴⁵ 특별히 그는 성육신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형상이신 분께서 그 형상에 따라 인류를 재창조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통하여 오셨다.”⁴⁶ 복음서의 서론에서,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음이 드러나며, 그것은 성육신 하신 성전이신 예수에 의해서만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들의 지위였다. 이 지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성령을 수여함으로 회복되며 그들도 예수에게 부여된 창조세계를 향한 화해와 회복의 사명을 전수받게 된다.

지구 성서팀(Earth Bible Team)이 성경과 기독교 전통에 등장하는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지만⁴⁷ 프란시스 왓슨(Francis Watson)이 지적한 데로 인간인 우리는 창조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날 수 없다.⁴⁸ 중요한 것은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인간중심적 내용이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이다. 클로흐(David Clough)는 성경 본문과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중심이 인간이라는 목적론적 인간중심주의(teleological anthropocentrism)을 배격하고 인간이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수단적 인간중심주의(Instrumental anthropocentrism)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⁴⁹ 이 인간중심주의는 예수의 성육신 모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윤리적 책임, 즉 인간에게는 죄의 용서를, 만물에게는 평화와 화해를 위해 아낌없는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책임을 제시할 수 있다. 현대과학은 인간의 행동이 생태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증명했으며, 이를 통해 생태환경문제들을 살피고 그 성찰의 결과를 행동으로 옮기는 주체는 결국 인간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인류의 오만과 경시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이해되서는 안된다. 레위기는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그들을 그 땅에서 토해 낸다고 가르치고

44 Denis Edwards, “Creation Seen in the Light of Christ: A theological Sketch,” in Creation is Groaning: Biblical and Theological Perspectives, ed. Mary L. Coloe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2013), 3.

45 ‘Athanasius, Orations Against the Arians 1:46’, translated in Khaled Anatolios, Athanasiu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4), 103, 157.

46 Athanasius, On the Incarnation, ed. F. L. Cross (London: SPCK, 1957), 7.

47 The Earth Bible Team, “Guiding Ecojustice Principles,” in Readings from the Perspective of Earth, (UK: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42-53, 50.

48 Francis Watson, “In The Beginning: Irenaeus, Creation and the Environment,” in Ecological Hermeneutics: Biblical, Historical, and Theological Perspectives (London and New York: T&T Clark, 2010), 129.

49 David L. Clough, On Animals: Volume One Systematic Theology (London and New York: T&T Clark International, 2012), xvi. xx.

있기 때문이다.⁵⁰ 마틴 루터는 “인간을 통해 모든 생명체가 그 의지에 반해 헛되게 되고 ... 피조물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이다”라고 말한다.⁵¹ 또한 칼뱅은 피조물들이 “그들은 창조된 섭리에 따라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의 일부를 나누어 받고 있다”고 보았다.⁵² 이것은 인류와 다른 창조물들이 필연적으로 상호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암시하는 것이다. 인간은 모든 창조 세계의 구성원들과 본질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기에 창조 세계와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노력은 인간이 책임져야할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VI. 나가는 말

본 연구는 요한복음 서문(1:1-18)에 나타난 성전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모든 창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창조세계의 일원으로서의 인간”이라는 교리적 준거틀이라는 열쇠를 통해 해석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σάρξ와 σῶμα라는 두 용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σάρξ는 인간의 육체를 지칭하기도하며 종종 πάντα와 함께 쓰여서 “모든 피조물의 육체”로도 해석된다. 요한복음에서의 σῶμα는 예수의 성전청결 사건(2:21)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기사(18-21장)에 많이 등장하며 특히 예수의 죽은 몸을 지칭하는데도 사용된다(19:38, 40; 20:12). 따라서, 요한복음에 사용된 σάρξ와 σῶμα는 말씀의 현현인 예수가 육체의 필멸성을 포함하는 존재로서 모든 피조물의 육체(σάρξ)와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말씀의 성육신된 예수는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성전으로서 모든 육체에게 생명을 전하는 자로 제시된다.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즉 기독교론에 집중하여 제자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려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요한복음 서문은 우주적 차원의 만물을 아우르는 성육신에 대해서 언급하며, 부활하신 “예수가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신 행동은 그들을 새 창조와 새 성전 안으로 통합시킨 것으로 간주된다.”⁵³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피조물의 갱신의 시작을 알린다. 이러한 요한의 기독교론적 성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육체가 인간외에도 모든 육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요한복음의 성육신적 성전신학은 생태적 함의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0 Jonathan Morgan, “Transgressing, Puking, Covenanting: The Character of Land in Leviticus”, Theology 112: 172-80.

51 Luther: Lectures on Romans ed. John Baillie, John T. McNeill, and Henry P. Van Dusen (London: SCM Press, 1961), 238.

52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1, Books I-III.xix, John T. McNeill, (London: SCM Press, 1960), 246.

53 그레고리 K. 비일 저, 『성전신학: 하나님의 임재와 교회의 선교적 사명』, 266.

“요한복음의 생태적 읽기의 가능성에 대한 소고”에 관한 논평

임진수_감신대 신약학

서론

논문의 저자가 언급하는 것처럼 이번 여름 역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로 우리나라는 유래 없는 폭염을 경험하고 있으며, 지중해 지역의 산불과 최근의 하와이 산불 그리고 캐나다 산불 같은 현상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의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논문의 저자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생태적 읽기를 위한 귀한 글을 발표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논평자는 논문 저자의 글을 중심으로 하여 요한복음의 생태적 읽기에 대한 길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론

우선 논문의 저자는 “데이빗 호렐(David G. Horrell)과 어니스트 콘라디(Ernst M. Conradie)의 생태 성경신학을 이용하여 요한복음에 묘사된 성육신한 예수를 새 창조의 성전으로 제시하여 이것이 어떠한 생태적 함의를 드러낼 수 있는지에 관해 논해 보고자 한다.”고 서술한다(저자 논문 1쪽). 이런 이해는 최근에 논평자가 읽은 노만 C. 하벨의 “생태비평”(박혜경 번역), 『최근의 성서비평 방법론과 그 적용: 고대 본문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다』(유연희외 옮김), 77-110, 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에서 제시하는 글의 방향성과 큰 맥락을 같이한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논문의 저자는 요한복음의 로고스 서문을 ‘생태적 읽기’로 해석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그가 다루고자 하는 입장을 “1) 모든 창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God’s covenant with all creation), 2) 창조세계의 일원으로서의 인간(Humanity as part of the community of creation)”로 제시한다.

논문의 저자는 글의 IV, 요한복음 서문의 구조와 내용(1:1-18)을 분석하면서 “구속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한 창조 신학에 근거한다.”고 말한다(저자 논문 6쪽).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신비”

는 육체(σάρξ)가 된 말씀(λόγος)이다(1:14)”라고 서술하고 “물질성과 생명을 담은 육체(σάρξ)와 만물(πάντα)은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λόγος)과 영광(δόξα)과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입장은 논문의 저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신학적인 방향으로 읽혀진다. 논문의 저자는 요한복음의 서문이 “창세기 기사와 공명한다”고 말하면서, “이 서문은...하나님과 세계의 동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되는 창조 변화의 내러티브임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 논문은 로고스가 성육한 내용을 다루면서 “육체(σάρξ)”라는 단어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 용어가 “인간의 본성, 몸과 영혼을 대표하는 화법의 한 형태로 이는 만물(πάντα)과의 연관성을 드러내는 데도 사용된다.”고 지적한다(1:3,13). 그러면서 이 육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물 사이에 벌어진 관계를 회복할 능력은 갖고 있지 않다(1:5).”고 말한다(논문의 6쪽). 그러면서 논문의 저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요 1:14절)의 내용에 주목하면서 “이 육체(σάρξ)는 회복에 대해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지적하고, 그리고 이 성육신 사건을 “새 창조가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간단하게 서술한다(논문의 8쪽).

논문의 저자는 이런 서술을 해나가면서 V. 육체, 성전 그리고 성육신 부분에서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에 사용된 육체(σάρξ)라는 단어가 “모든(δόξα)”이라는 단어와 연결하며, “모든 육체”는 인간만을 의미할 수도 있고 확장된 의미에서 모든 피조물을 지칭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의미를 “육신을 지으신 분이 육신으로 지음을 받는 자로, 모든 생명의 창조주가 살아 있는 피조물이 되는 일견 모순처럼 보이는 두 가지가 하나로 통합된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요한복음의 성전의 주제와 연결한다(8-9쪽). 논문 저자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것이며, 1:14절에서 일반적으로 ‘거하다’로 번역되는 ‘σκηνώω’동사를 가지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장막 성전의 성취”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천상의 성전”이라고 말한다. 특히 요한복음의 성전정화에서 예수가 예루살렘을 대신하여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σῶμα(몸)이라는 단가 사용되었음을 지적하고, 이 몸을 다시 σάρξ와 연결한다(논문의 10쪽).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가 제자들에게 성령을 수여한 행동은 말씀이 육체가 되어 자신이 성육신화된 새로운 성전이 된 것처럼, 성령을 제자들에게 수여하여 그들도 새 성전의 일부가 되고 더 나아가 다른 육체(σάρξ)와 몸(σῶμα)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 경계선을 넓혀나갈 힘을 수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요 17:18-23참조).”고 말한다(논문의 10쪽).

위와 같은 논의를 통해서 논문 저자는 논문의 교리적 준거들에서 지구 성서팀(Earth Bible Team)의 주장들을 다루면서 “성경 본문과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중심이 인간이라는 목적론적 인간 중심주의(teleological anthropocentrism)를 배격하고 인간이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수단적 인간중심주의(Instrumental anthropocentrism)를 보여준다고 주장한다.”는 클로흐(David Clough) 의견을 소개한다. 그러면서 논문 저자는 “이 (수단적) 인간중심주의는 예수의 성육신 모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윤리적 책임, 즉 인간에게는 죄의 용서를, 만물에게는 평화와 화해를 위해 아낌없는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책임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 한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한 이 논문의 최종적인 결론은 “요한의 기독교론적 성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육체가 인간외에도 모든 육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요한복음의 성육신적 성전신학은 생태적 함의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 대한 평가와 질문

우선 이 논문의 가장 큰 장점은 요한의 로고스 서문에 등장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는 성육신 신학을 중심으로 하여 창조의 회복과 생태신학적인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논평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생태신학적인 입장에서 읽지 않아서 오늘의 지구 환경이 고통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원으로 너무 무책임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게 된다. 따라서 논문의 저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요한복음의 생태적 읽기는 성경을 중심으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논평자는 이러한 논의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논평을 대신하고자 한다.

1. 논평자가 논문 저자에게 먼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논문의 저자가 생태학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인지 질문하고 싶다. 옥스퍼드 <<생태학 사전>>(A Dictionary of Ecology)에 의하면, “생태학은 생물체(유기체)들 간의 상호관계, 그리고 생물체들과 주변 환경의 살아있고 살아있지 않은 모든 측면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과학적 연구이다”(Allby 2003, 136)¹ 만약에 생태학이 이런 정의에 따라서 이해 된다면 논문의 저자는 다루고 있는 내용에서 “상호관계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질문해 보고자 한다. 물론 논문의 저자는 III. 과학과 요한복음의 수사학에서 요한복음과 과학의 관계를 다루고 있지만, 논평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논문에서 다루는 ‘상호관계’과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
2. 논문의 저자는 논문을 시작하면서 데이빗 호렐(David G. Horrell)과 어니스트 콘라디(Ernst M. Conradie)의 생태성경신학을 언급하면서 거기서 추구하는 “의심, 저항, 복원의 성경신학”을 따라서 글을 전개하려고 하였는데 그것이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질문해 본다. 우리가 생태학적 성서 읽기를 한다면 우리는 성경도 잘 알아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지금의 기후 위기 문제가 인간이 추구해왔던 과학에 대한 지나친 낙관주의가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는지를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과학과 신학의 대화는 좀 더 열린 자세로 그리고 좀 더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하여 지구 환경에 대한 공동의 관심사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논문의 저자가 소개했던 지구 성서팀(Earth Bible Team)이 다루는 중요한 주제인 ‘지구와의 공감’ 이라는 입장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논평자는 생각한다. 따라서 논평자는 논문의 저자가 이 논문을 통해서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질문해 보고자 한다.
3. 논평자는 논문의 저자가 로고스와 육체와 장막 사상으로 표출되는 예수의 성전됨에 대한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의 저자가 “말씀(λόγος)의 성육신은 장막 성전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천상의 성전임을 드러낸다.”는 말을 통해서 생태적 성서 읽기가 다시 신학적인 논의로만 귀결되는 것이 아니가 하는 아쉬움을 가진다. 논평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가져야 할 생태적인 이해는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 인간의 어떤 노력도 없이 하나님의 섭리아래 스스로 생명력을 유지해 가는 낙원의 형태였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그 낙원을 잃어버리고 땅에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하므로 자연적인 상태계에 개입하므로 땅에 대한 폭력과 착취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요한복음에는 어

¹ 노만 C. 하벨의 “생태비평”(박혜경 번역), 『최근의 성서비평 방법론과 그 적용: 고대 본문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다』(유연희의 옮김), 84.

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4. 논평자의 입장에서 볼 때 요한복음의 성전정화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수의 가장 강력한 비판이었다고 생각하며, 그 성전의 회복은 자신을 희생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완전한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의 예수의 대적자들이 성육신 하신 예수를 배척하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질서에서 얼마나 많이 멀어졌는지를 생태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의 생태문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인간의 이기심을 요한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잘 보전할 수 있는지를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논문저자의 성전신학과 관련하여 논평자에게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것은 성육신에서 다루어지는 육체(σάρξ)와 성전정화에서 언급되는 몸(σῶμα)에 대한 관계성이다. 요한신학 안에서 육체라는 단어가 상당히 도발적이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바울 신학의 육체 개념과도 잘 연결된다. 그러나 몸(σῶμα)에 대한 이해는 논평자의 입장에서 볼 때 육체와는 차별화된 개념이며, 육체보다는 좀 더 높거나 고상한 함의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 지금처럼 지금 지구환경이 점점 더 인류에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시대에 논문 저자의 귀한 숙고와 고민이 이 문제에 무관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과 일깨움으로 이어지는 더 큰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